

농지 쪼개서 팔고 '6평 별장' 짓고...우량농지가 사라진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년 새 2500건 증가...필지·면적은 줄어 전남 절대 농지 비율 82.2% 불과...농지 투기 방지 방안 마련돼야

10년 새 광주·전남에서는 광산구 면적(2만ha)에 달하는 논밭이 사라진 가운데, 전남의 경지정리면적 중 농업용을 위해 쓰여야 할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비율은 8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6평짜리 별장'으로 통하는 농막(農幕) 열풍 등의 영향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1년 새 2500건 넘게 증가했다.

23일 광주일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김승종 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남에서 경지정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비율은 8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지정리면적은 15만5159ha(헥타르, 1ha=0.01km²)로, 전국 경지정리면적 75만8100ha의 20.5%를 차지한다.

전남 경지정리면적 16만ha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12만7541ha로, 82.2% 비중으로 나타났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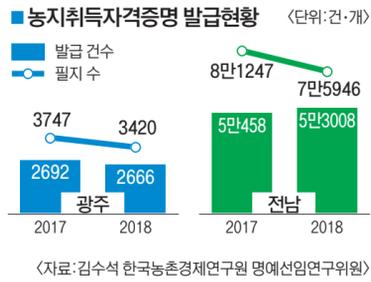
머지 17.8%를 차지하는 2만7618ha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1992년부터 도입됐으며, 농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뿐만 아니라 전남 경지정리면적의 7분의 1 가량(15%)은 녹지(4.3%)와 관리지역(10.7%)에 분포했다.

제주를 뺀 8개 도(道) 지역 가운데 경지정리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85.0%)이었고, 전남이 뒤를 이었다. 충북(58.6%)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서울·대전·제주가 0% 비중을 나타냈다. 인천(81.1%)과 세종(63.4%), 울산(42.6%), 대구(16.7%), 부산(1.1%)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광주는 0.1%에 머물렀다.



시·군별로 비교할 때 진도군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95.7%로, 전남 22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가평군(25.8%)였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국 평균 농업진흥지역 비중(70.0%)을 밑돈 지역은 목포와 광양, 순천, 여수, 구례 등 5개 시·군이었다.

목포시 경지정리면적 117ha 중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0%를 기록했다. 광양(40.4%)과 순천(44.5%), 여수(50.7%), 구례(66.9%) 등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경지정리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광주 9083ha·전남 28만6396ha 등 29만5479ha로,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7.2%(-2만2877ha) 감소했다. 줄어든 경지는 광주 광산구 면적(2만2280ha)보다 큰 규모다.

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주관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 투기 방지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주제 발표에서 "경지정리된 농지 중 상당한 면적이 녹지와 관리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주 주택 등 설치를 위한 허용행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제한 강화와 농지이용 및 전용규제 강화, 규제순실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에 비추어 본 '농막 주택'의 불

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광주·전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5만5674건으로, 전년(5만3150건)에 비해 4.7%(2524건) 증가했다.

농지 취득은 현행법상 투기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늘었지만 대상 필지 수는 8만4994개에서 7만9366개로 6.6%(-5628개) 줄었고, 면적 또한 1만1379ha에서 1만866ha로 4.5%(-512ha) 감소했다.

이는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고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뒤 쪼개기로 팔아 차익을 거두거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지만 별장처럼 쓰기 위한 '농막' 짓기 열풍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농막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업진흥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자유로워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1기 SNS 서포터즈 '광은인싸'와 송종욱(가운데) 은행장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 시작을 알리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직원 랜선으로 만나요”

SNS 서포터즈 '광은인싸' 발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1기 직원 SNS 서포터즈 '광은인싸'를 선발하고, 발대식을 최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1기 SNS 서포터즈는 총 20명으로, 광주은행 공식 소셜미디어(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 활동한다.

오는 12월까지 9개월 동안 온라인 구독자들과 소통을 넓히며 광주은행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 송종욱 은행장은 발대식에서 "지방은행의 한계

를 뛰어넘어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소통의 창을 넓혀가며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며 "상품 및 프로세스 개발을 비롯한 금융서비스에서부터 고객 및 지역민과 마음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까지 광주은행만의 감성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를 확고히 다지고, 고객님께 신뢰와 사랑받는 금융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오는 6월7일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동영상(UCC)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아빠 가장' 2만6000명 직장 잃었다

지난해 기혼 남성 가구주 취업자 71만명...10~30대 감소폭 커

지난해 코로나19 불황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혼 남성 가구주 취업자가 전년보다 2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광주·전남 전체 취업자는 173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4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광주가 1만3000명, 전남이 1만1000명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혼인상태별 취업자를 보면 기혼자 취업자가 광주 1만5000명·전남 4000명 등 1만9000명 줄

어들이 타격이 컸다.

미혼 취업자는 광주는 전년보다 2000명 늘고, 전남은 7000명 감소했다.

가구주 취업자는 광주 1만5000명·전남 1만3000명 등 두려 2만8000명이 줄었다. 가구원 취업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각각 2000명씩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광주·전남 기혼 남성 가구주 취업자는 2만6000명 급감하며 통계를 낸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기혼 남성 가구주 취업자는 광주 29만5000명·전

남 41만5000명 등 71만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만5000명, 1만1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광주·전남 취업자 감소는 10~30대에 집중됐다.

지난해 하반기 15~29세 취업자는 광주 5000명·전남 1만6000명 등 2만1000명이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1만2000명(광주 9000명·전남 3000명) 줄어들며 뒤를 이었다. 40대 취업자는 광주에서 3000명 늘고 전남에서 4000명 줄었다. 50대는 8000명(광주 1000명·전남 7000명) 줄고, 60세 이상은 전남에서 1만8000명 늘고 광주는 전년과 비슷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부, 펀드 40개 조성...바이오·창업 등에 7천억 투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269억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함께 모태펀드가 출자할 자펀드 40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자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3746억원에 민간 투자자금 3722억원을 더해 총 7468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바이오와 그린뉴딜 등에 투자하는 스마트대

한민국펀드는 1269억원 규모다.

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M&A)을 돕는 펀드는 1000억원,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 자금을 일대일로 매칭 투자하는 기술개발 매칭펀드는 341억원 규모로 각각 만들어진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펀드,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대학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도 조성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96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21 36 38 39 43	3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45,861,063	10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75,187,855	52
3 5개 숫자일치	1,597,781	2,447
4 4개 숫자일치	50,000	123,780
5 3개 숫자일치	5,000	2,061,560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